

부산 연극을 우리손으로 키웁시다!

제12회

# 부산 연극제

## 문화회관 중강당

94年 3月 26日 ▶ 28日, 94年 4月 1日 ▶ 3日

(1일2회 공연, 오후5시, 7시30분)

- ◎ 시상식: 94. 4. 4(월) 오후 6시
- ◎ 장소: 시민회관 소강당
- ◎ 주최: 부산직할시
- ◎ 주관: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
- ◎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예총부산지회  
부산시교육위원회 · 釜山日報社  
국계신광 · 부산메일신문사  
KBS 부산방송총국 · MBC 부산문화방송



### ● 부산 연극제 출품작 ●

극단	출품작	작	연출	일시	문의전화
현장	달빛신화	이현대	최재영	3.26▶3.28	581-9578
열린무대	하느님	이창복	이창복	4.1▶4.3	553-9475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는  
불안을 가슴에 지닌 인간을 위해

극단 **열린무대**

제12회 부산연극제 참가작품  
제18회 정기공연

# 하늬

작·연출/이창복

1994. 4. 1▷3  
문화회관 중강당

## ❖ 작품개설 ❖

극단 열린무대의 공연 <하늬>는 갑오 농민전쟁 100주년이 되는 1994년을 맞이하여 100년전의 역사적 상황을 되새기고 아울러 같은 호남지역에서 14년전 일어났던 광주민주항쟁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두 역사적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과 도도히 이어지는 정신을 현재적 시각에서 되짚어보고자 창작된 작품이다.

앵커의 해설을 통해 시간대별로 전해지는 광주의 열흘간의 사실과 호남지역에서 100년전 펼쳐진 상황이 이중구조로 맞물려 장면이 진행된다. 주된 장면으로 설정된 것은 물론 100년전 농민들의 붕기를 둘러싼 상황들이다. 그 상황들이 단순한 과거 역사의 재현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동엽 시인의 <금강>에서 창조된 인물인 하늬를 건강한 의식을 지닌 민중의 전형으로 해석, 작품 속에서 재창조했으며, 역사적 인물인 전봉준과 함께 펼쳐보이는 그들의 현실관, 당대 조정과의 대결, 외세에 대한 대응방식, 외교의 개념에 대한 피력 등을 통해 나라를 걱정하고 민중들의 바른 삶의 형태를 꿈꾸는 인물로 그려 현재의 우리에게 하나의 전형을 제시하려 한다.

중심 이야기의 시작은 싸릿골 마을, 아낙들이 빨래터에 앉아 생활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늬처는 내려오는 방울을 지키기 위해 몸을 팔아 시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고는 방울을 꼭 지키라는 말을 남긴 채 마을을 떠난다. 전봉준과 하늬는 서로의 의견차로 쉽게 붕기를 하지 못하다가 고부군수로 조병갑이 다시 부임하자 전주성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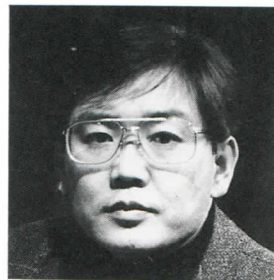
평화로운 집강소 시절, 영호남의 화합적 차원과 폐정개혁안에 따라 과부인 남원덕과 홀아비인 밀양 남정네가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집강소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진다.

한양을 치자는 하늬와 조정과 화약을 맺자는 전봉준의 의견은 더 팽팽하게 대립되고, 남북접의 충돌, 청에 이어 일본의 군대가 몰려오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드디어 남북접이 하나가 되어 금강을 끼고 진격하려 하지만 우금치에서 전멸하고 만다. 쓰러진 하늬의 품에서 떨어진 방울을 주워들고, <새야 새야> <오월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극은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역사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광주의 5월에 대해서도, 100년전의 갑오농민전쟁에 대해서도 저서를 통한 성과물은 나타났으나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무대 언어로는 아직도 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고 작품 <하늬>를 통해 그러한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또한 UR시대에 접어들어 수입물품이 밀려 들어오는 현시점에서 이 땅의 100년전 근대 문명이 유입 되려는 시기에 조정의 입장과 농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찾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더욱 시의 적절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연출의 변 ❖



작, 연출/이 창 복

ㄱ형에게

어느날 지하극장을 나서니 봄이 있었습니다. 산업도로 위의 차들은 제법 여유있게 유리문을 내려놓았고, 거리의 여자들은 파스텔 조의 봄으로 몸을 치장한 채 여유있게 보이더군요. 아스팔트위에서 올해의 첫봄을 만났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지난번 친구들 모임에서 들은 얘긴데 모두들 두통을 앓고 있답니다. 한 친구 말로는 특별한 약이 없대요. 그저 싱싱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조금만 맛있게 먹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형이 좋아하던 산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맑은 공기가 건강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저희야 여느 겨울이나 마찬가지로 새봄 무대를 준비하느라 지하에서 겨울을 피했습니다. 감기를 앓기도 했지만 단원들 모두 건강합니다. 담배는 결국 줄이지 못했습니다. 500W 전구의 광선 아래로 10여명이 무대를 바라보며 뿜어내는 담배연기는 가히 아우스비츠의 가스실과 같지요.

지금 생각하면 역시 줄여 피웠어야 했었어요. 맑은 공기를 만끽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저희 작품은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00년전 이 땅의 농민군이 밟았던 의로운 길을 단원들과 함께 MT겸해서 다녀왔습니다. 농민전쟁의 진원지였던 고부, 태인, 부여, 황토현, 전주성, 우금치 등등 농민군의 진격지를 따라가며 100년전의 합성을 들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인상깊었던 것은 호남의 흙빛이었습니다. 호남의 땅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붉은빛이었습니다. 워낙이 기름진 땅이라 붉은빛인가, 100년전 흘린 농민군의 피를 아직도 이땅이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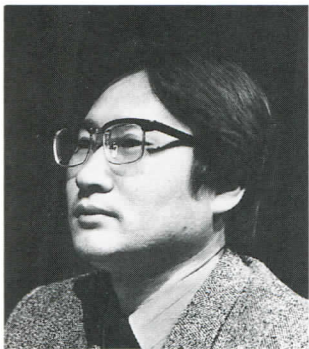
이왕 작품얘기가 나왔으니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내서 100년 전의 역사와 광주 민주항쟁을 작품속에 병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구성이 갑오농민전쟁의 정신이 어떻게 현재화되고 미래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접근에 유용하리란 믿음에서였습니다. 광주항쟁은 모니터를 설치하여 진행시키고, 연극무대와 모니터 설치가 유리되지 않도록 앵커는 배우가 말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형이 시간나는대로 공연보시고 작품을 비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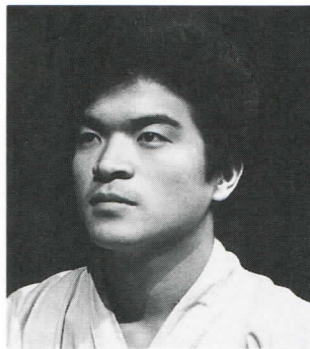
형!

형이 공연을 보시고 따뜻한 눈길로 무대를 향해 박수치시는 모습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이왕이면 형수님하고 아이들 데리고 공연장에 오세요. 형의 두통에 도움이 되는 공연이 되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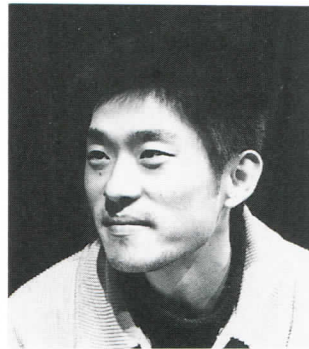
CAST



앵 커/이 병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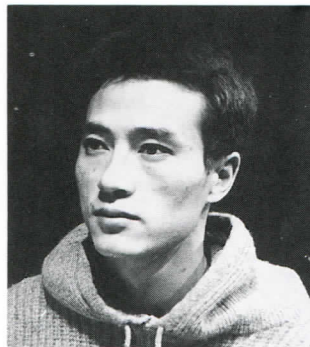
전봉준/강 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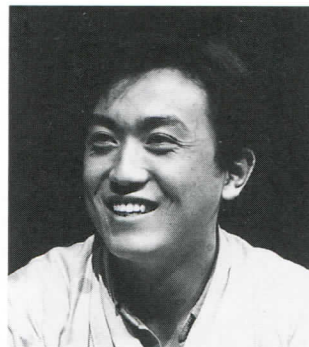
하 니/ 차 진 혁



하니처/최 정 원



양남,조병갑/심 창 신



남정네,절양자/이 성 훈



광주댁/안 성 혜



남원댁/백 현 주



목포댁/최 진 옥



제12회 부산연극제 참가작품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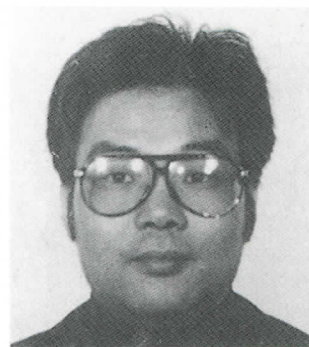
기획/열린무대 기획실  
무대감독/심 창 신  
모니터, TV/이 성 훈



무대장치/강 현 중  
이성훈  
허용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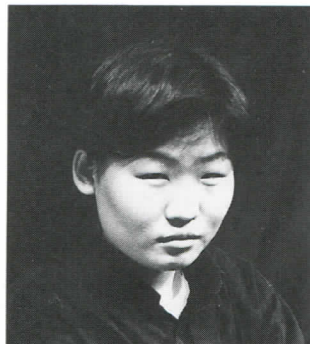
조 명/심 창 신  
천은경



음 악/박 철 홍



의상/엄 미 영



소품/장 은 선



음향/오 영